Process Records

2018.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 아카이빙북

A

Process Records

이 책은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의
과정과 결과 일부를 담은 아카이빙북이다.
이 책에서는 너무 길고 난해한 본래의 사업명 대신
본 사업을 '프로젝트 A'라 칭하며
책의 제목 역시 아카이브, 아카이빙의 첫 글자 A로 했다.

2018.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 아카이빙북

Process Records

목차

prologue **서울기록화 : 관계의 수집** 4

our story **이제, 겨우, 한 발자국일지라도** 8

memories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10

Process 01 **과정의 드로잉**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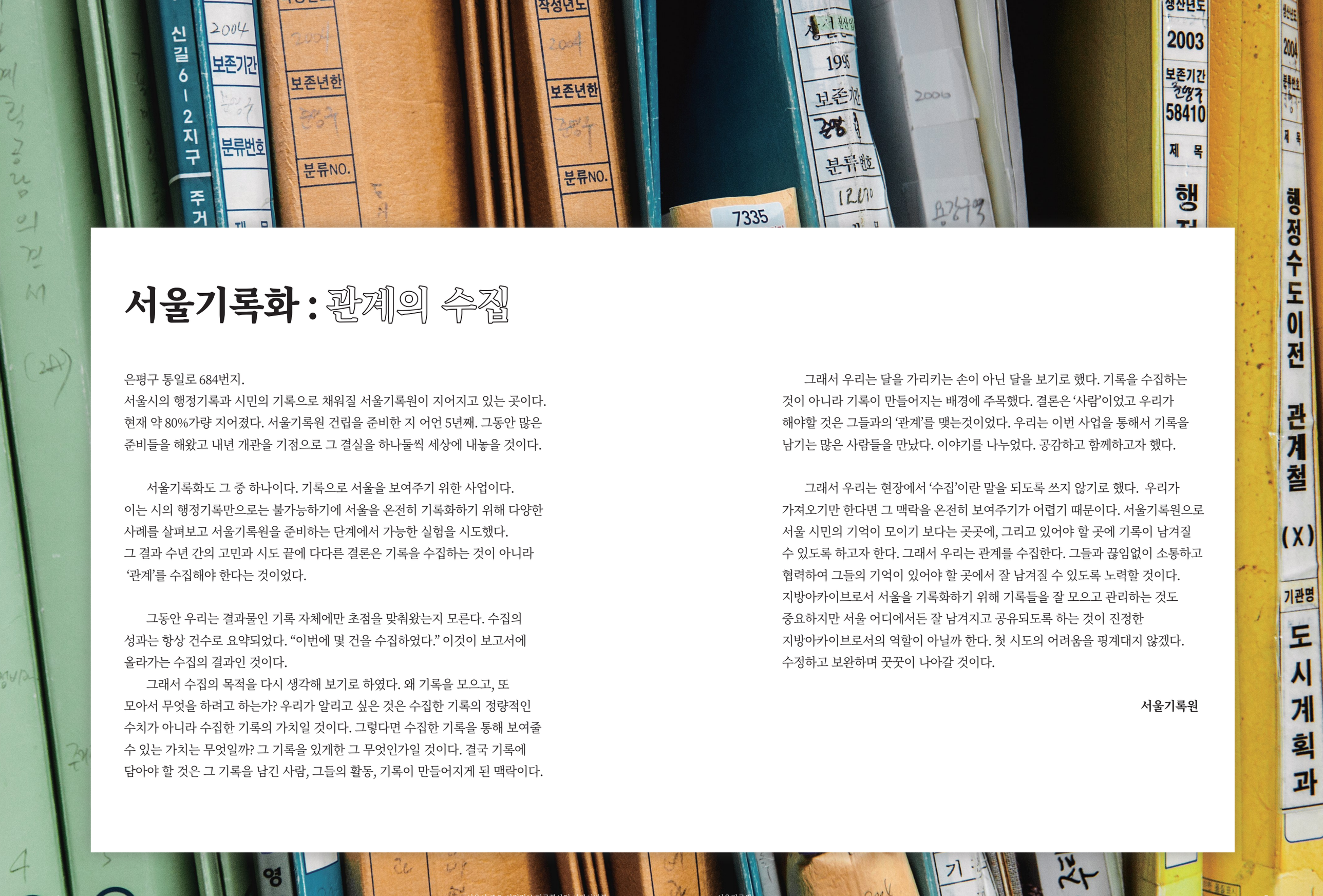
Process 02 **과정의 낱말들** 44

워크숍 질문지 80

Process 03 **플래시백 14일** 82

prologue

서울기록화 : _____ 관계의 수집



서울기록화 : 관계의 수집

은평구 통일로 684번지.
서울시의 행정기록과 시민의 기록으로 채워질 서울기록원이 지어지고 있는 곳이다.
현재 약 80%가량 지어졌다. 서울기록원 건립을 준비한 지 어언 5년째. 그동안 많은 준비들을 해왔고 내년 개관을 기점으로 그 결실을 하나둘씩 세상에 내놓을 것이다.

서울기록화도 그 중 하나이다. 기록으로 서울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시의 행정기록만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서울을 온전히 기록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기록원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능한 실험을 시도했다.
그 결과 수년 간의 고민과 시도 끝에 다다른 결론은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결과물인 기록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왔는지 모른다. 수집의 성과는 항상 건수로 요약되었다. "이번에 몇 건을 수집하였다." 이것이 보고서에 올라가는 수집의 결과인 것이다.

그래서 수집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왜 기록을 모으고, 또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알리고 싶은 것은 수집한 기록의 정량적인 수치가 아니라 수집한 기록의 가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수집한 기록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 기록을 있게한 그 무엇인가일 것이다. 결국 기록에 담아야 할 것은 그 기록을 남긴 사람, 그들의 활동, 기록이 만들어지게 된 맥락이다.

그래서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이 아닌 달을 보기로 했다.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 만들어지는 배경에 주목했다. 결론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해야할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맺는것이었다. 우리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감하고 함께하고자 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수집'이란 말을 되도록 쓰지 않기로 했다. 우리가 가져오기만 한다면 그 맥락을 온전히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기록원으로 서울 시민의 기억이 모이기 보다는 곳곳에,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기록이 남겨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수집한다.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그들의 기억이 있어야 할 곳에서 잘 남겨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방아카이브로서 서울을 기록화하기 위해 기록들을 잘 모으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 어디에서든 잘 남겨지고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 첫 시도의 어려움을 핑계대지 않겠다. 수정하고 보완하며 꿋꿋이 나아갈 것이다.

서울기록원

our story

이제, 겨우, 한 _____

이 일이 시작된 것은 2018년 4월, 봄이다. 서울기록원은 은평구 혁신파크구 질병관리본부의 한 귀퉁이에 첫 삽을 뜨고 뼈대를 세워가고 있었다. 새집이 지어질 때까지 서울기록원의 둥지는 남산 자락의 오래된 시멘트 건물[1] 이라고 했다. 개나리꽃 필 무렵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때가되니 남산은 어느새 초록으로 무성해졌다. 계절이 두 번 바뀌는 5개월의 시간 동안 서울기록원과 기억발전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는 일에는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사업명만으로는 그 일의 정체를 알기 어렵다. 간혹 단어나 문장이 너무 어려울 때는 그 내용의 행위, 형태를 보는 게 이해하기 좋을 때가 있다. 이번 프로젝트도 그렇다.

이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한 행위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서울시청의 여러 부서를 비롯해 공공영역의 문화재단, 협치영역의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서울시에 자생적으로 뻗어있는 수 많은 민간단체의 사람들과 직접 마주 앉았다. 만나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일단 들었다. 각자 만들어 내고 있는 다종다양한 기록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들었다." 기록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 따라 현황과 고민의 지점은 모두 달랐다. 기록관리의 기준과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협치영역 그리고 오롯이 자율적으로 유지되는 민간영역의 생각을 듣는 일은 그래서 더욱 특별했다. 기록물이 '생산'된다고 할 때 그 시작점이나 방식 자체가 시정기록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우리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2]'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시정기록을 관리하는 입장과 동일하게 공공/협치/민간기록을 바라보게 되면 그 본래의 생명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컸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서울기록원의 목적이 '기록의 외연'을 넓혀나가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가장 조심해야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 기록'이 두 개의 날개로 날아오른다고 할 때 시정기록이 하나의 날개라면 공공/협치/민간기록은 또 하나의 날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개의 날개가 온전히 균형을 맞춰 날아오르기 위해 '지금, 여기'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것. 두 개의 날개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협력망을 만들고, 서로 다른 성향의 기록물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일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 차이를 발견하고, 통역하고, 연결하는 일이었다.[3]

사실 프로젝트의 과정에서 느낀 가장 큰 당혹감은 다르게 쓰이는 '단어들'에서 왔다. 분명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일을 시작했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자 기록관리의 언어와 민간영역의 활동가 및 단체들의 언어가 충돌하며 생각지 못했던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의미가 흩어졌고 교차점은 멀어졌다.

절망적이지만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일과 비슷하다. 물론 쉬운 방법이 있다. 학계에서 정의한 단어사전을 활용하면 된다. 우리에겐『기록학 용어 사전』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미 권위로 정해진 사전에 정의를 맞춘다면, 결국 그 사전을 쓸 때 고려하지 않은 주변 영역 즉, 마이너리티의 언어들은 배제되거나 규율에 맞춰 억지로 구겨 넣을 수 밖에 없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쩌면 이 일은 처음부터 불가능한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우리는 불가능한 연결을 꿈꾸는 것은 아닐까? 실물 기록의 수집이 아니라 시정기록 바깥의 '경험을 수집한다'는 것이 허황된 일은 아닐까? 그러한 '기억과 경험'을 시정기록과 연결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산책을 듣는 시간』[4]의 작가는 이런 말을 했다. "타인을 혹은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다가가는 것. 그렇게 한 걸음 다가가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마법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 마법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겨우 내디뎠다.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말하자면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무인도에 도착했을 뿐이다.
실패에 대한 불안보다는 희망을 품는다.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 수많은 무인도를 탐험할 항해의 시작점. 풍랑에 갇히거나 항로를 잃거나 엉뚱한 곳에 도착하는 등 '실패'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섬을 지나 다음 섬으로 지나가며 우리의 강점과 약점과 불운과 행운을 경험하며 앞으로 나아갈 거라는 믿음이 있다. 서울기록원은 이제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기억발전소

1 현 서울특별시청 남산 분원. 구 중앙정보부 제5별관(대공수사국).

2 프로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힘이 엄청나게 센 거인이자 노상 강도였다. 그는 아테네 교외의 언덕에 살면서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상대로 강도질을 일삼았다. 특히 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었는데, 프로크루스테스는 나그네를 붙잡아 자신의 침대에 눕혀 놓고 나그네의 키가 침대보다 길면 그만큼 잘라내고, 나그네의 키가 침대보다 짧으면 억지로 침대 길이에 맞추어 늘여서 죽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침대에는 침대의 길이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장치가 있어, 그 어떤 나그네도 침대의 길이에 딱 들어맞을 수 없었고 결국 모두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출처 시사상 식사전 [박문각]

3 서울기록원은 시정기록이라고 하는 행정문서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기관으로, '서울기록'이라는 맥락 을 말할 때 행정기록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 다종의 수많은 기록물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4 정은, 2018 사계절문학상 대상수상작

[redacted]

____ 발자국일지라도

[redacted]

memories

2018년 4월부터 ________ 9월까지

[redacted]

서울기록은 서울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을 총칭하며, 당대의
서울시의 정체성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기록으로 정의한다.

서울기록은 기존의 유형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확장한다.

**서울기록을 구성하는 요소는
시정기록과 시민기록으로
나뉘며, 시민기록은 협치기록과
민간기록으로 나뉜다.**

2016년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사업 연구보고서 中

“역사란
부정확한 기억이
불충분한 문서와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이다.”

줄리언 반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ㅣ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 일까?
자생적으로,
자신의 지역과
주변 사람들을
기록하고
관련된 자료를
모으는 사람들에게
아카이브는 어떤 의미 일까?”

“우리가 하는 일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일’
기록물을 수집하는 일이
기록활동을 수집하겠다고

이다.
아니라
하니 말이다.”

“공동체 아카이브의 기록물이
공공영역으로 넘어올 때
경계해야할 것은
그 의도와 맥락이 삭제될 수
기록을 정리하고 수집한다는
‘해석’을 하는 일이기

있다는 점이다.
것은
때문이다.”

“기억은 적극적인 사고와
의도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수동적인 축적물이
것이지
아니다.”

랜달 짐머슨, 기록의 힘 中

“기록은 다른 시간과 다른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다.
보존기록은 그 자체를 위해서
앞선 시간의 증거를 보관할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보다는 오히려, 기록은
그리고
그들의 유용한 생명은 그들이
끝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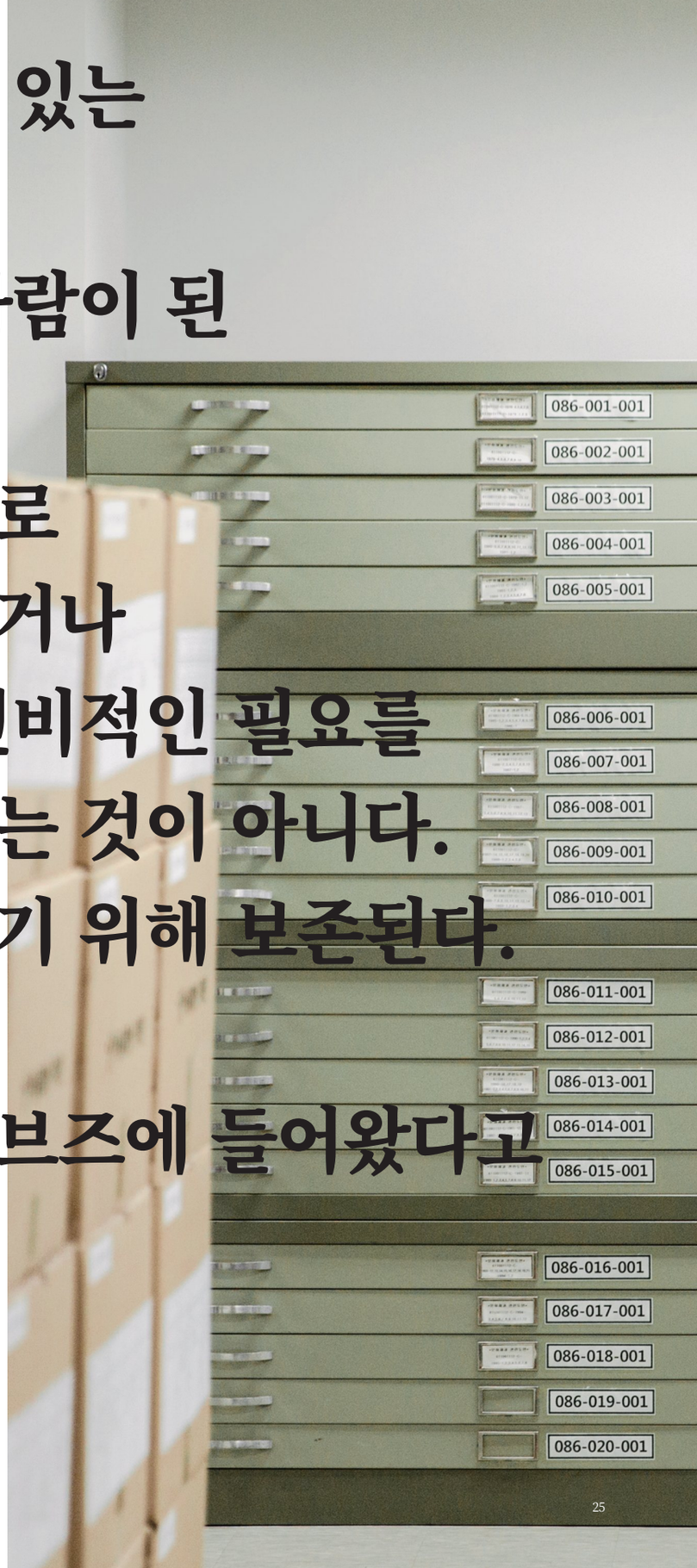
제임스 오툴 & 리처드 칵스

장소에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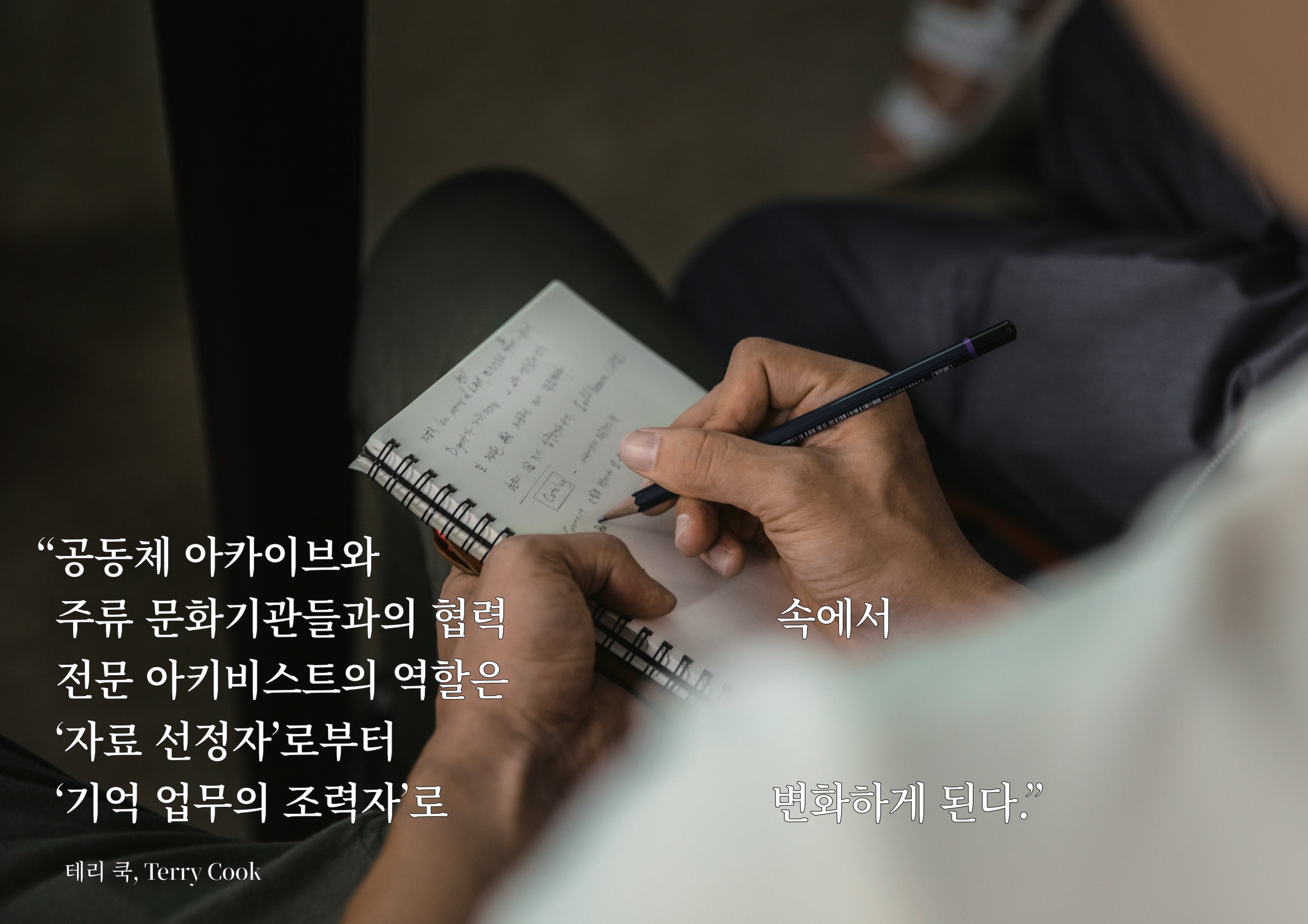
다른 사람이 된

그러므로
보존되거나
뭔가 신비적인 필요를
보존되는 것이 아니다.
이용되기 위해 보존된다.

아카이브즈에 들어왔다고



“공동체 아카이브는
자기만의 문맥과 주제에 따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맥락을 살린 채 공존 해야한다.
서울기록원의 이번 수집 사업은
시민을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바라보는
수집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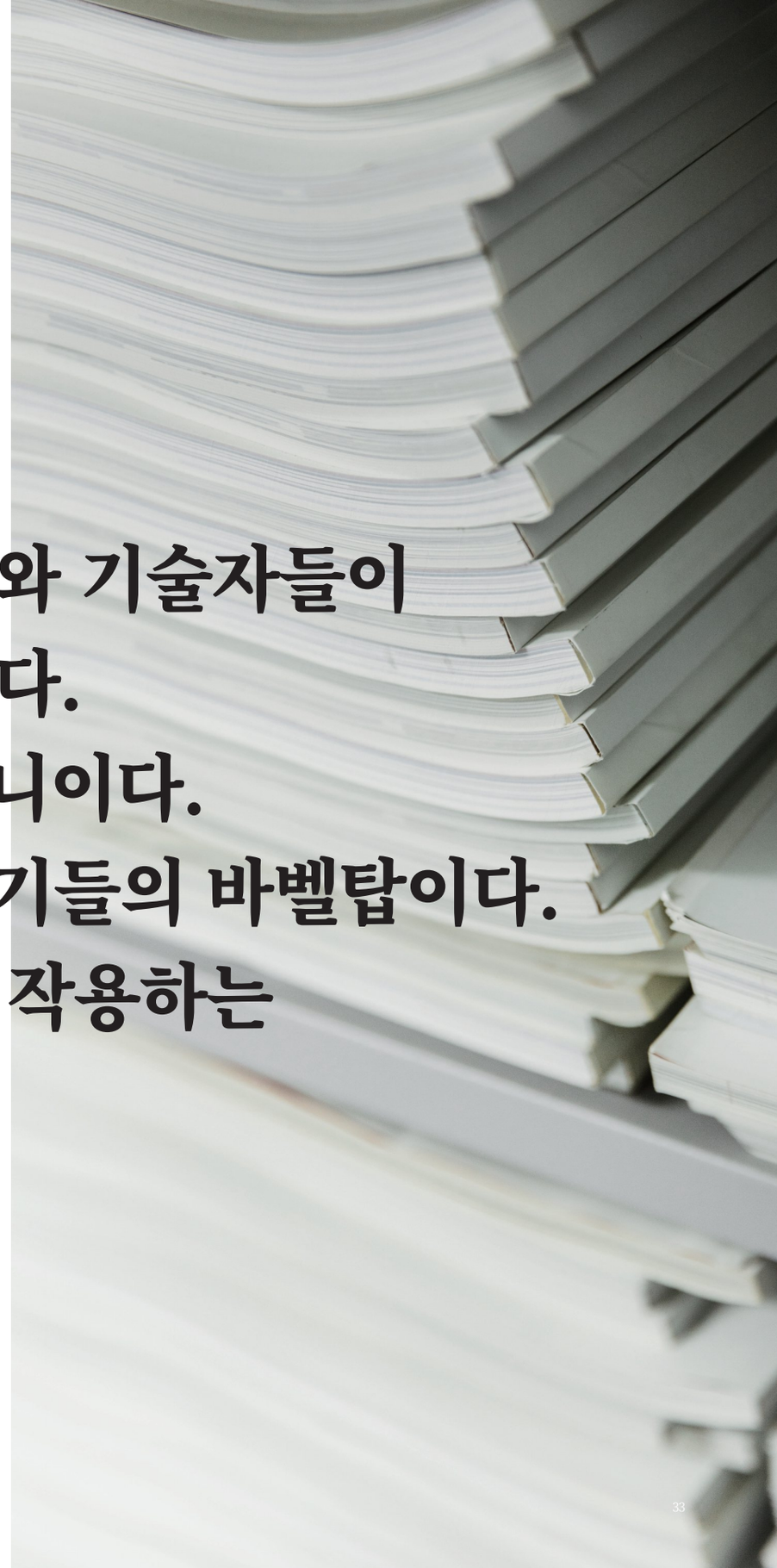
"공동체 아카이브와
주류 문화기관들과의 협력 속에서
전문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자료 선정자'로부터
'기억 업무의 조력자'로 변화하게 된다."

테리 쿡, Terry Cook

“아카이브는 전문가와
조용히 칩거하는 장소가
그곳은 인간 경험의
의미와 중요성의 전쟁터이고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동하는
장소이자 공간이다.”

번 해리스

학자와 기술자들이
아니다.
도가니이다.
이야기들의 바벨탑이다.
힘이 작용하는



out us,
!”

것은
다.

“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Nothing about
without us!”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out us,
!”

것은
다.

“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Nothing about us,
without us!”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 Nothing about
without us!”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Process 01 과정의 드로잉

왜 과정일까?

과정(過程) : [명사] 일이 되어 가는 경로.
과정은 일이 진행되는 방법이나 순서를 뜻하는 말이다. 프로젝트는 일정한 목표를 설정해 진행되고, 완성된 결과물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처럼 선례가 없고, 추상적이며,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하는 요소가 많을 때에는 완성된 결과물만으로는 부족하다. 진행 과정에서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었고, 어떤 식의 합의점을 찾았으며, 본래의 목표와 달리 무엇을 포기했고 무엇이 실패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말할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 A[1]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팀 미팅 주간회의 주 1회
팀별 회의 월 2~4회
착수보고 1회
중간보고 1회
결과보고 1회

참석자 기억발전소 6명
서울기록원 6명

사업 초기 프로젝트 콘셉트 설정을 위한 사전 작업

⇒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기록 관련 용어의 이해 차이를 좁히는 회의를 주로 했다.
⇒ 기록학 용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세미나를 진행했다.
⇒ 수집→인수 등록→정리기술→맥락연계로 이어지는 전체 사업의 흐름을 조율하고 각 단계에 대한 이해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주(週)별 진행 사항

1 2 3 4 5

⇒ 착수 보고
⇒ 세미나

문제 해결 1

[고민 1]
프로젝트 A가 단회성 용역사업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했다. 서울기록원에서는 프로젝트 A 이외에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기록원 전시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A의 결과물이 다른 사업들과 연결되고 호환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결론 1]
타 부서의 사업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부서 간 사업 과정과 내용을 공유했다. 부서 간 협업처럼 각 사업의 회의에 프로젝트 A팀의 구성원이 참여하거나 참관했다. 프로젝트 A의 결과물이 디지털아카이브 등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제언을 구상했고, 전시 콘텐츠와 연계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이 되고자 했다.

1 이번 사업명은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이라는 명칭을 지니고 있지만 이 책자에서는 '프로젝트 A'라고 부르기로 한다.

사업 중기 현장 활동과 실질적인 작업

⇒ 각 단계별 전문성에 따라 팀별 회의가 진행되었다.
⇒ 수집팀은 공공/협치/민간기록 영역의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는 현장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 인수-등록/분류-정리기술팀은 현장 면담 결과를 파일로 정리하고 인수, 등록된 단체들의 기록물 리스트를 분류, 정리하는 형식을 만들고 샘플 작업을 진행했다.
⇒ 맥락연계 담당 연구진은 수집된 샘플을 바탕으로 RMS의 시정기록을 일일이 찾아 연계가능한 지점을 검토하고 민간기록과 시정기록 사이의 연결지점을 정리했다.
⇒ 온오프라인 콘텐츠팀은 맥락연계를 기반한 기록물을 활용해 콘텐츠 카탈로그를 만들었고 온라인 전시와 오프라인 전시를 위한 기획안을 제시했다.

문제 해결 2

[고민 2]
기록화사업? DB구축사업? 전시 콘텐츠 사업?
프로젝트A의 과업은 기록활동 발굴 및 협력네트워크 구성, 인수등록, 분류 및 정리기술, 시정기록과의 맥락 연결,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공 방안, 아카이빙북 제작까지 총 6개 과업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집과 관련된 것 이상으로 많은 과업이 붙어있다. 이것을 다 할 수 있는가?

[결론 2]
아카이브의 업무는 상호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업무별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 시민기록의 수집 프로세스는 단순히 기록물을 획득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시민기록의 획득부터 보존·관리, 서비스까지 일련의 과정을 테스트해야만 서울기록원의 전체 업무 흐름에서 '서울기록화'라는 업무의 범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도출될 수 있다. 더불어 다른 관련 업무와의 연계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주(週)별 진행 사항

6 7 8 9 10

⇒ 중간 보고
⇒ 시민기록화 키트 제작
⇒ 자문회의
⇒ 고민 어휘록 워크숍

2 Record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기록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생산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쓰는 시스템(업무관리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등)에서 기록을 이관 받아 기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RMS는 주로 기록관 단계에서 쓰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업 말기 과정 회고 및 결과물 정리 취합 작업

⇒ 결과보고서 작업을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 슬랙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공유와 공동 원고 집필, 수정과 피드백 작업을 거쳤다.
⇒ 아카이빙북 원고 집필과 편집, 디자인을 진행했다.

주(週)별 진행 사항

11 – 12 – 13 – 14 – 15

⇒ 결과보고
⇒ 최종보고서 작업
⇒ 아카이빙북 제작

문제 해결 3

[고민 3]
현장의 목소리를 기록학의 용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지체 현상이 발생했다. 리드파일이나 케이스 파일의 형태로 옮기는 일은 이후에 아키비스트가 수집된 내용을 정리,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민간 협력대상을 만날 때 기록관리의 용어로 설명하면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격차를 줄일 대안이 필요했다.

[결론 3]
이원화 방식을 선택했다.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아키비스트의 관점에서 활용하기 익숙한 방식을 유지해야한다는 점에서 합의했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좀더 이해하기 쉬운 대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예를 들면 '리드 파일'이라는 용어 자체를 민간 영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워했기 때문에 '사전설문지'라는 말로 바꾸고 내용도 이해하기 편한 단어로 바꾸어 활용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록화사업 키트가 탄생했다.

문제 해결 4

[고민 4]
수집?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수집인가?
프로젝트A의 기획 단계에서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 못하고 구름 위에 떠 있었다. 그러다 현장의 기록활동가들과 단체들을 만나며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집에 대해 불편해 했다. 우리는 수집을 해야하고…

[결론 4]
서울기록원이 왜 수집을 하는지 고민해야한다. 시민기록을 수집함으로써 아카이브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자생적인 기록활동들이 지속되어 아카이브에 다다르게 할 것인가? 서울기록원의 방향성은 철저히 후자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은 '수집'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목적은 서울기록화다. 서울의 모습과 서울시민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수집'이란 방법적 틀은 너무 제한적이다. 우린 그럴 인력도 재원도 충분치 않다. 하지만 서울 곳곳에는 자생적인 기록활동들이 싹트고 있다. 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함께 서울기록화를 이루어나갈 것이다.

문제 해결 5

[고민 5]
새로운 시도. 불확실한 미래. 뚜렷한 의지
프로젝트A는 서울기록원 건립을 준비해오며 줄곧 잡아온 뚜렷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 법령에 정의된 지방기록물 관리기관보다는 지역과 시민을 아우르는 지방아카이브가 되겠다는 것. 이를 실현하고자 한 이 프로젝트는 다소 위험을 무릅쓴 시도이다.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활동을 모은다는 것. 시민이 주체가 되는 기록화를 하겠다는 것. 도무지 결과를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론 5]
L교수님은 자문을 통해 '맷집'을 길러야 한다고 하셨다. 새로운 시도는 내·외부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기 쉬운데 이를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의 방향성을 뚝심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버틴다는 것이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는 불통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역과 시민을 아우르는 지방아카이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을 돌아다니고 시민들을 만나며 그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 프로젝트A에서 해왔듯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함께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다.

사업 결과물

1. 서울의 기록활동 발굴 및 협력네트워크 구성
2. 기록물 인수 및 등록
3. 기록물 분류 및 정리기술
4. 시정기록 조사 및 맞 및 맥락 연결
5. 온·오프라인 기록콘텐츠 구성
6. 아카이빙북
7. 시민기록화 키트 : 사업소개 및 사전설문지, 동의서, 업무협약서, 인수인계서, 체크리스트, 리드파일, 케이스파일 폼 등

Process 02

과정의 낱말들 _____ 왜 낱말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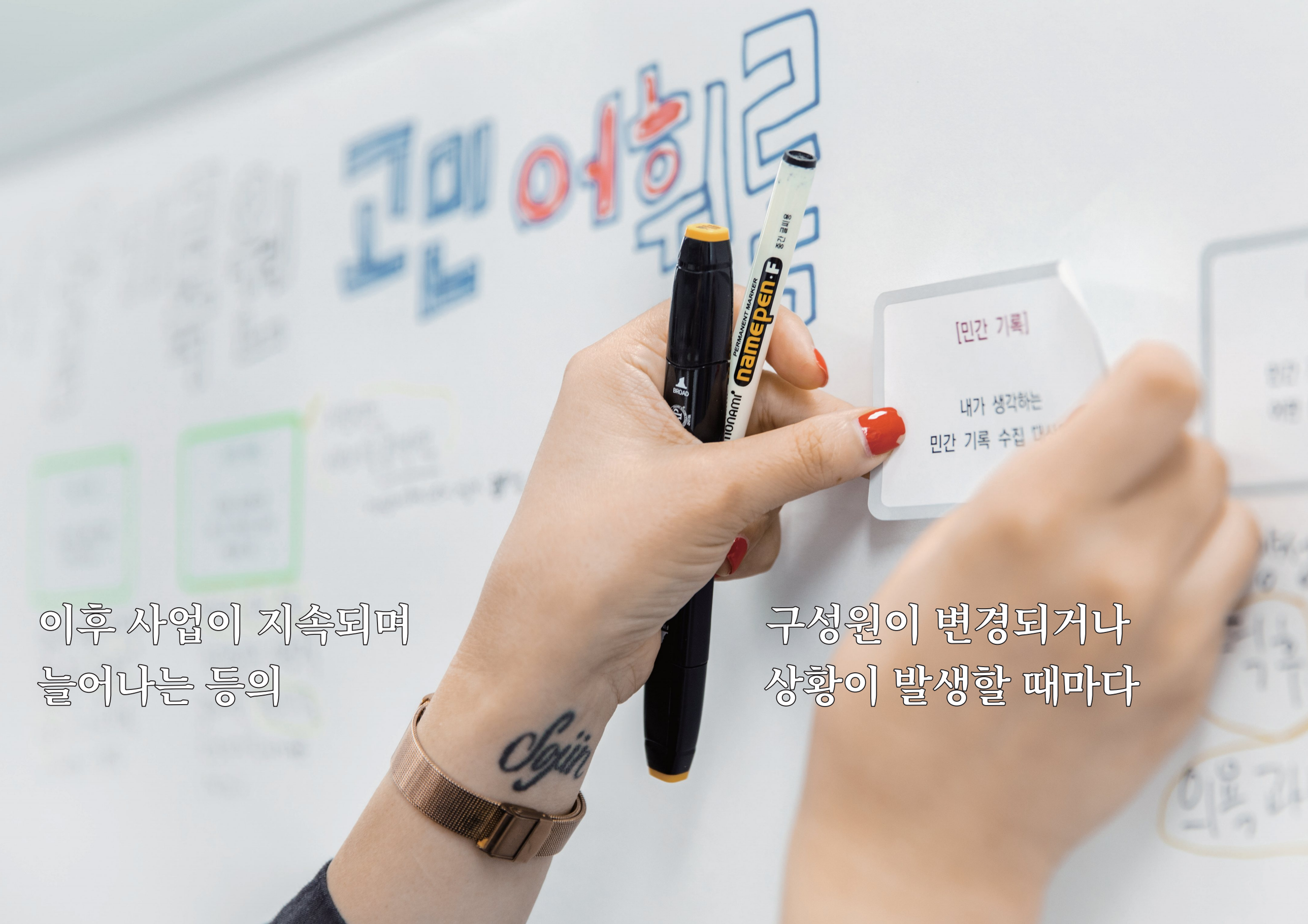
어떤 일의 시작에 있어 많은 경우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단어장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경우에는 대화가 전혀 방향으로 흩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움직인 구성원들은 사업 내내 끊임없이 서로의 단어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것은 지루하게 반복됐고, 이해하기 어렵게 답답했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두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합의할 지점에 도달하면 희열을 맛볼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과정의 낱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보폭을 맞추며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이번 수집사업을 두고 고민했던 많은 생각들을 정리한 단어장이다. 이 단어장은 사업발주처의 기록관리사, 행정직원과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억발전소, 각 분야별 연구원들이 참여한 워크숍 그리고 사업 기간 중 자문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의 생각을 모아 정리되었다.

진행방법

서울기록원의 수집사업팀은
이번 수집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층위의 질문을
워크숍을 통해
입장에서 이야기를

사전 설정하고
참여자 각각의
정리했다.

주요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수집사업, 기록, 번외라는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질문을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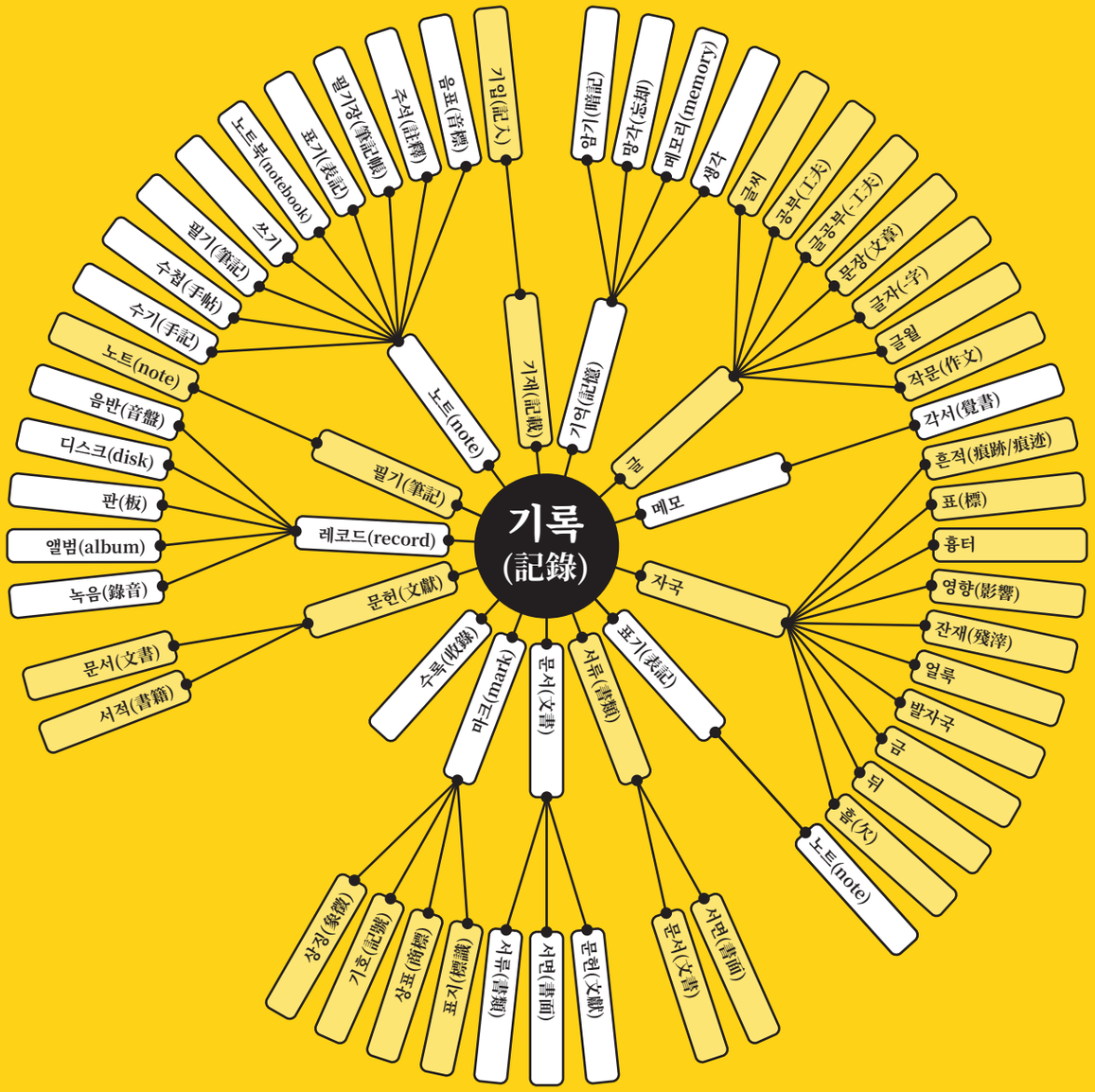
이후 사업이 지속되며
늘어나는 등의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사업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이해의 폭을 좁혀나가기 위해
내부 워크숍을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

기록
기록 활동
기준
아카이브
기록원
기억
사람
수집
시스템
공동체 아카이빙
전시
해석
기록 용어
시정기록
정체성
서울시 시정정보 기록화사업
기록학
민간기록

1.기록(記錄)



우리는 기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기록'은 이번 사업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 공공기록, 민간기록, 시정기록, 협치기록.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쓰는 단어에 가깝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카이브'라는 이름 아래 '기록'을 모으거나 직접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작 합의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모두들 질문을 던진다. '이것은 기록일까?' '기록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것은 모아야 할까?' '이것은 버려도 되는 기록일까?' 도대체 기록은 무엇일까? '기록' 의 정의는 방대하다. 공공기록에서 기록으로 정의되는 것은 오히려 명확하다. **기록은 수집되 는 대상이다. 그것은 형태를 지닌다. 실체가 있고 서고에 모아둔다. 아키비스트는 수집된 기록물을 가져오고 관리한다.** 메모 1

메모 1

매뉴스크립트 방법론과 공동체 아카이빙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영남 선생님의 말처럼, '보존소'(수집형 보존기록관=매뉴스크립트)에서는 기록을 대상화시킨다. 하지만 공동체 아카이빙은 다르다. 기록은 오히려 부차적이다. 기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기록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동체 아카이빙은 기록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일이고, 여기에 기록활동가로서의 아키비스트가 결합하며 기록화에 참여하게 된다. **[이현정]**

하지만 현장을 다닌 우리들은 '인상 깊은 기록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이라는 질문에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둔촌주공아파트의 기린 미끄럼틀의 조각! 전체 형태가 온전한 박물도 아니고, 조각 하나만 놓고 볼 때 그것이 미끄럼틀의 조각인지, 기린 모양이었는지 알 수 없는 시멘트 덩어리를 두고 **그것이야말로 '기록'이라고 말했다.** 메모 2

메모 2

둔촌주공아파트의 기린 미끄럼틀 조각이 인상 깊다. '이런 것도 기록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누구에게는 기록이 될 수도 누구에게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기록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거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린 미끄럼틀 조각만 보고도 기록은 특정 시점을 회상하거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하는 매개체이다. 작은 조각만으로 기린 미끄럼틀이 머릿속에 그려져서 충분했다. **[임태원]**

처음부터 '기록'으로 결정된 것과 '기록'으로 발견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오히려 우리는 기록에서 그것을 모으는 유물들이 시대의 호명에 의해 그 의미를 더 해가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쓰여질 까?'**메모 3 를 질문한다고 했다.

메모 3

수집을 하면서 '이게 나중에 쓰여질까? 어떻게 쓰이는 게 합리적일 것인가?' 이를 재현할 것인지, 상징만 가지고 가도 충분한 건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시를 위해 고유의 가치를 보여줘야하는 것인지, 수집 담당자가 현장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학문적 분야나 관점에 따라서 정해야한다. 이게 수집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든다.수집전문가 여럿이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조영삼]**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은?

현장의 활동가가 '이것도 기록이에요?'라고 물어봤을 때 힘들었다. 무작정 아무 기준 없이 모아도 될까? 그걸 어디에 보관하지? 박스 하나가 캐비닛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래도 모아놓으면 나중에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신에게 기록이란?

몸으로 하는 것.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은 기록일까? 소설일까? 종교일까?

소설이 기록이 아닐 이유가 없다. 종교적 산물이, 경전이 기록이 아닐 이유가 없는 거다.

민간기록은 무얼까?

기록이 몇 개의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그걸 모르겠다는 게 수집사업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규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고, 정의되지 않는 것이 매력이다. 그래서 '기록이 뭐냐'는 것을 법률로 정의할 수는 있다. 법률로 규정하려다보니 광의의 정의를 정하려고 한다. 공공기록의 범주를 명확히 담고, 학문적/아카이브적 영역에서는 그걸 가두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걸 찾아간다. 이 기관이 존재하는 한 계속 찾아가는 거다. 시간이 지나며 계속 고민이 덧붙여지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멋진 기록은?

오지 않을 미래. 부모님의 말과 행동. 죽음. 존재 이후의 그 무엇. 엄마의 가계부. 목소리.

2.기록용어

기록 용어

기록용어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번 사업 내내 외국어를 배울 때처럼, 입에 익지 않아 낯설고 생소하게만 느껴진 단어들이 많았다. 일상적인 단어도 기록학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나 쓰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난 민간영역의 활동가** 메모 1 **들도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써요?'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그렇게 공공과 민간, 학문과 활동의 언어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다 넓어지기를 반복했다. 네 달여의 시간동안, 우리는 꼭 집어 말할 수 없어도 '어렴풋이' 자기만의 사전을 채워가고 있었다.

메모 1

리드? 기록대상? 접촉자?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기록원에서 쓰는 용어가 우리에게 생소하다.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 **[허길수]**
초등학고 고학년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용어를 만들어야겠다. 멋진 단어를 쓰고자 한다면 순화된 말을 괄호로 달아주면 좋겠다. **[남현숙]**

기억발전소도, 민간영역의 활동가들도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언어를 만들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쌓아왔다. '마을아카이브' 메모 2 라는 단어도 각자의 관심을 중심으로 시작해 모인 자료, 그 속에서 연결되는 맥락을 마을의 이야기로 추출하는 행위로, 보다 실천적인 접근을 강조해 아카이브의 의미를 꾸려가는 나가는 활동가도 있었다.

메모 2

마을 아카이브에 대한 역접근 ☞ **마을 기록을 모은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아카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관심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그 속에서 맥락이 연결되는 것으로 마을 이야기를 추출하는 것. [최연희]**

저마다의 사전을 가지고 기록용어를 적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이번 프로젝트 A를 진행하면서 큰 과제였다. 우리는 먼저 기록용어 그대로의 정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왜 그런데?' '그게 맞아?'라고 되묻고, '비슷한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 '더 이해하기 쉬운 말은 없을까' 등을 고민하며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시도를 해본 것이다.

서울기록원은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떻게 협치/민간영역의 기록활동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까? 민간영역은 기록용어를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서울기록원과의 협력이나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은 없을 것이다. 1-2시간 진행한 면담은 서울기록원의 활동을 이해하고, 협력을 구상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기록관리의 용어를 일상의 용어로 순화해 서로 다른 영역의 원활환, 오해가 없는 소통을 위한 사전을 만드는 일이 아닐까?** 메모 3

메모 3

공동체의 기록활동의 메타데이터 표준은 있을 수 없다. 가장 필수적인 요소와 그들이 정한 메타데이터가 서울기록원의 기록관리 요소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맵핑하면 된다. 다른 용어를 기록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다. **[이현정]**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은?

사업 중반이 진행될 때까지 가장 힘든 게 용어였다. 기록관리학, 기록관리자의 용어와 일반인의 용어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장벽이 있었다. 그런 정의대로 맞추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왜 그런데?' '그 말이 그게 맞아?'를 반문하며 사업을 진행해야했다.

이 사업을 하며 가장 많이 쓴 물건과 그 이유는?

국가기록원의 기록학개론. 이 사업 안에서 '수집' 특히 '민간영역에서의 수집'이 뭔지 감이 오지 않아 일단 읽었다. 기록학이나 기록원의 규율이나 수집 과정의 이관이나 관리, 정리, 등록 과정이 이해를 위해 가장 쉬운 자료를 찾았다. 많지는 않지만 사업 중간 기록원과 기억발전소 사이에서 통역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소한의 대화를 위해 기록언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 사업이 훗날 나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새로운 외국어를 배운 것 같은 사업? '리드' '정리' '수집' 등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힘들었다. 오래 사업을 하면서도 나 역시 한 번에 받아들여 지지 않는 용어들인데, 1-2번 만날 민간영역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일상적인 용어로 대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새로운 말을 만든다면 의미가 모호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를 고민해야했다.

사전적 정의

개인기록 personal papers
개인이 개인 업무나 개인사와 관련하여 생산 수집한 기록으로서, 일기나 메모, 편지, 취미 활동과 관련된 문서들이 이에 속한다. 조직의 기록관리에서는 조직 기록으로 관리해야 할 공식 기록과 개인 기록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기록 public records
정부 기관에서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하여 모은 기록으로서 개인의 업무나 거래에서 생산 접수된 민간 기록과 구분되는 개념. 국가의 공공 기록은 대부분 그 범위와 형식 등이 법규에 정의되어 있다. 민간 기록은 일반적으로 공적 조직이나 공공 기관의 수집,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공적으로 중요한 민간 기록은 공공 기록 관리 기관에서 공공 또는 국가 기록으로 지정하거나 수집하여 관리하기도 한다.

민간기록 private records
비정부기관의 출처로부터 비롯된 기록. 기업 기록, 대학, 종교단체, 병원, 정당, 노동조합 등 다양하다.

리드 lead
잠재적 수집물의 소장자, 내용, 위치 등에 관한 정보. 수집형 보존 기록관의 경우 리드 파일은 기관 부설 보존 기록관의 처리 일정표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 리드 개발에는 생산 기록 조사, 최근 문헌 조사, 선행 기증자, 연구자, 기록관 소장물 등으로부터의 정보 조사 등의 방법이 있다. 리드 기록은 서식에 따라 관리되거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된다.

출처 : 기록학 용어 사전, 한국기록학회 엮음, 역사비평사, 2008년

3.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 사업

서울시 시정정보 기록화사업

이번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이 사업이 여러 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는 탓이다. 종횡으로 여러 방향을 향하고 있다 보니 명확하게 사업의 성격을 드러내는 명칭을 부여하기 어려웠다. 사업의 다층적 특성 때문인지 사업 발주처와 운영자들도 혼란스러운 상태로 일을 추진했던 기억이 남는다.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 각주1 은 그 뿌리가 있다.
2016년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개발 사업이 있었고, 2017년 서울시 기록수집 및 콘텐츠 구축 사업 메모1 이 있었다.

메모 1

2016년 사업에서는 서울기록을 정의하고 서울기록화 수집전략을 세웠다.
2017년 사업은 서울시 기록화 현황 분석 및 주제선정, 그리고 시범 수집이 진행됐다.

맥락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연장선 위에 있다. 그래서 일부분 개념 정의와 범주 등은 지난 사업의 연구보고서에서 가져와 사용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그 접근방법과 진행에 있어 완전히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실험. **말도 안 되는 실험** 메모2 을 했기 때문이다.

각주 1

이 사업명을 듣고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리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다.

반응1 서울시 자체 정보를 기록하는 사업? 시정정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다.

반응2 서울시에서 진행한 그동안의 굵직한 정책 변화들 기록하는 작업?

반응3 시정정보라는 것은 매우 공적문서 혹은 공무원적 언어인데 민간영역의 기록수집과 연계된다는 부분의 연상이 잘 되지는 않는다.

반응4 '기록화'가 제일 중요한 단어 같다. 그동안 안했던 것을 만들어가겠다는 느낌이 든다.

반응5 공공기관에 있던 것들을 정리한다는 느낌이 더 든다. 10-15년 정도 된 기록물을 기록화했을 거 같은 느낌이다. 사업 타겟은 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살펴보는 20~40대 공무원들일 것 같다.

반응6 사실 사업명칭만 보고는 명확하게 '아 이런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기록화 대상이 시정정보? 시정정보가 뭐지? 행정기록을 말하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계속 생겼다.

메모 2

그러니 이 사업의 이름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프로젝트 A'라고 해야 한다. 확장의 아카이브, 실험의 아카이브, 실패의 아카이브, 불확실과 불가능의 아카이브라는 차원에서 말이다.

사업 명칭을 살펴보자. '시정정보 기록화'라는 표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시정정보라는 전제로 인해 이 사업이 행정문서나 공공기록물에 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명백히 **공공과 협치,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총체적 서울기록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이 명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빙산의 일각 아래 도사리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총체적 서울기록화(공공+민간)를 위한 장기적 사업 비전을 확인한다. 사실 서울기록원이라는 공공기록관이 본연의 의무인 행정기록의 관리와 보존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민간영역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활동 주체들과 연계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기록 허브를 꿈꾼다는 목적은 매우 의미 있다. 하지만 본래의 역할 이외의 영역과 접점을 찾는 노력이 현실화되는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상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 메모3 이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덜 된 상태이다.

메모 3

개별적 사안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 차라리 실체적 수집이면 목표가 명확하다.
연대/협력네트워크는 실체가 없는 관계를 수집하는 것이다. 관계에 매몰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영역을 만나며 사람들의 수많은 불평불만을 들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록원 자체가 맷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뭘 줄 수 있는가, 안됐을 때 그 한계를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대한 맷집이 키워지지 않으면 민간영역과의 연대협력에서 대등해지지 않는다.
관계에 집중하지 말고 조망해야한다. 서울시 사업과 연계되는 게 있다면 그걸 연계해주는 게 기록원의 역할이다. 개별 사안 처리 문제에 집중하면 몇 년 못갈 것 같아 염려된다.
사업 자체에서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 서울시 자체가 '자신들의 줏대 가지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 게 무엇인지, 당황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할 수 있는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현정]**

민간영역의 기록활동 주체를 발굴 메모 4 한다.

메모 4

이 과업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현장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5개월의 사업 기간 동안 100여 개 이상의 전수조사, 실제 면담과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

2017년 서울시 기록수집 및 콘텐츠 구축사업에서 일부분 민간영역의 기록화 현황 분석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실체가 확실한 그룹에 대한 분석과 면담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이번에는 각 당사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협력 관계 구축의 틀을 만들고자 했다.

민간과 협치영역의 기록활동을 파악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일. 그 일과 함께 또 하나의 **실험** 메모 5 이 병행되었다.

메모 5

실험實驗 [명사] 1. 실제로 해 봄. 또는 그렇게 하는 일.
2. 과학에서, 이론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함.
3. 새로운 방법이나 형식을 사용해 봄.

민간, 협치영역으로부터 수집, 인수한 시민기록을 서울기록원의시스템에 도입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기록의 인수, 등록, 분류, 정리 기술을 시도하는 실험** 메모 6 이었다.

메모 6

둔촌주공아파트, 서울혁신파크(구 질병관리본부), 촛불혁명기록물 등의 실물 기록과 박물류를 수집했고, 디지털 기록물과 목록을 이관 받았다. 행정기록과 달리 민간영역의 기록을 시스템에 도입하면서 고려되는 항목들, 수정되거나 추가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모색했다.

이 실험은 민간영역과의 협력을 기점으로 기록물이 수집되어 서울기록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활용하는 단계까지의 프로세스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존의 행정기록을 다루는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고, 진행 과정에서 유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작업은 기억발전소의 입장에서 **가장 회의가 들었던 과정** 메모 7 이었다. 이 부분의 실험을 이해하느라 정작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쓸 에너지를 소진했다는 회의도 든다.

메모 7

이 실험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진 갈등은 민간영역과 공공기록관의 기록에 대한 접근과 이해가 다른 데에서 왔다. 민간영역 특히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공영역으로 끌어들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일단 기록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목록화 작업을 비롯해 기록관리 방식에 충실한 기록물 정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민간영역의 기록을 공공기록관의 관리 방식에 맞춰 다시 정리, 분류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탈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기존의 맥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가능여부를 질문하게 만들었다. 과연 가능한 일인가? N개의 기록으로 남겨둘 경우, 본래 기록물의 생산 의도와 맥락을 살릴 수 있을텐데 기록관의 입장에서 그런 흩어진 기록관리를 견뎌낼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다. 마치 태생처럼, 본능적으로 아키비스트들은 분류하고 정리하는 존재들 같았다. 자동반사인형처럼 자기도 모르게 기록관리의 틀 안에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전미정]**

그리고 또 하나의 실험이 있었다. 시민기록과 시정기록 사이의 맥락연계는 가능할까? 일단 민간영역과 협력하고 기록을 함께 공유하며 서울의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기록의 의의와 가치를 확장시키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그 관계들이 연결망으로 존재하는 것을 뛰어넘어 기록물과 기록물의 연결로 이어지려면 우리는 어떤 상상과 어떤 실험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번에 수집한 민간영역의 기록활동 경험과 기록물이 서울기록원,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의 기록관리 시스템의 시정기록과 어떻게 만나는지 살펴보는 일은 아카이브 이용자와 아카이브 운영자가 **기록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살펴보려는 의도** 메모 8 였다.

메모 8

수집기록과 시정기록의 맥락연계는 공공기록관이 이용자의 기록 활용 범위를 공공기록에서 수집한 시민기록으로 확장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수집기록의 활용은 상이한 두 기록의 연계를

통해 '서울'에 대한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상하거나 보다 두텁게 역사를 쓰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 **[소준철]**

맥락연계를 시도했으니 직접 그것으로 온라인 콘텐트와 오프라인 전시 콘텐트를 기획하는 일까지 해볼 수 있을 터였다. 이에 온라인 콘텐트는 **협약 직전** 각주 2 의 서울문화재단의 목록을 참조해 온라인 카탈로그 형태로 기획했고, 오프라인 전시 콘텐트는 서울기록원이 상설전으로 준비하고 있는 '안녕, 둔촌주공아파트'와 연결해 진행했다.
마지막 과업은 **아카이빙북** 메모 9 의 출판이다.

메모 9

과정의 아카이빙을 목적으로 했다. 총 두 권의 책자로 나누어 1권에서는 프로젝트의 과정, 논의점, 민간과 시정 사이의 언어적 격차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트를 담았다. 2권은 이번 사업의 수많은 과업 중 민간협력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로 만난 민간영역 기록활동 주체들의 고민과 생각을 담았다. 이는 서울기록원과 공공에서 활동하는 아키비스트들이 앞으로 민간영역과 협력하고자 할 때 어떤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그들의 언어로 전달하기 위함이다.

결과보고서의 형식으로 이번 사업을 오롯이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경험을 공유해준 민간영역의 시민들도 독자로 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 현장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업팀의 고민이 있었고, 이번 사업 과정을 시각화 시킬 수 있다면 이후에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각주 2

협약 최종 단계에 이른 상태였으나 법적 자문 등의 절차상의 문제로 사업 막바지까지 자료 이관이 지연되었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방황했던 시기는?

중간보고회 전날이다. 맥락연계를 진행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비슷한 색깔 짜 맞추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들었다. 틀이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되게 헷갈렸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어려움이랄까. 맥락연계는 무엇일까? 리서치가이드와 다른 건 뭘까? 전시 기초 단계인데 어디서부터 이 자료를 쓰려는지에 대한 정체가 불분명해서 힘들었다.

이 사업은 훗날 나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아직 정리하기는 이르다. 중간에 끼어있는 입장이다 보니 뭐 하나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아쉽다. 어찌 보면 새로운 역할일 수도 있지만 전시와 프로젝트A에 걸쳐서 연결해줘야 하는 게 있고, 내가 어떤 영역에 있는지 분간이 안 가는 상황도 있었다. 프로세스가 서로 달라서 연결 짓는 게 어려웠다.

최근 사업을 진행하며 취미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수집사업을 하며 모든 취미활동은 스톱이다. 심적 부담감이 컸다. 잠도 안 오고.

4.수집(收集)

‘기록물의 수집이야말로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수집사업이 곧 아카이브의 생명, 즉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수집’의 정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규정되지 않은 일’,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고 있음을 여러 번 느꼈다. 서울기록원 내부 구성원조차 이 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에 **격차** 메모 1 가 있었고 진행 과정에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다.

메모 1

문화유산기관이든 아카이브든 신생 문화기관으로서 출발하는 서울기록원 입장에서 어떻게 다른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이 됐다. 후발주자로서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익숙한 방식이 아니다. ‘네트워크 수집’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하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일까?’를 묻고 고민했다.**[김은실]**

이 프로젝트에서의 수집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관계와 경험의 수집이 있고, 실물 수집이 있었다. 굳이 우선순위를 나누자면 추상적 수집이 먼저였고, 물리적 수집은 그 다음이었다.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작업** 메모 2 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생각하면 아래의 단계를 거쳤다.

메모 2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작업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동체 아카이빙에서 기록으로 접근하면 모든 걸 놓친다. (4.16 추모기록의 경우) 가족은 활동하고 있는데, 나는 남겨진 자료를 모으기만 하면 외딴섬처럼 될 수 있다. 가족이 무엇을 하는지, 공동체가 중요시하는 게 뭔지,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기록화의 수집대상이 줄어든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제일 중요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는 거-플랜카드’ 이런 식으로 실체적인 기록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다. 활동하다보면 그런 건 부수적이고, 그게 중요한 기록이 아닌 것이다. 그것이 기록으로 실체가 아닐 수 있다. **[이현정]**

스텝1. 민간영역의 기록 주체를 발굴하고 면담한다.

스텝2. 그들의 기록활동 경험, 기대와 요구사항, 협력네트워크 활용 가능성의 범위를 수집한다.

(케이스 파일, 리드 파일을 만든다)

스텝3.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실물 기록, 박물류 등의 인수/인계로 연결한다.

수집물의 상태는 각기 달랐다. 추상적 수집일 경우에는 각 민간/협치영역 기록 주체들의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 따라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었다. 그 중 **물리적 수집으로 이어진 몇 가지 사례** 메모 3 중 서울기록원의 기준에 맞게 **목록화하는 작업** 메모 4 도 일부 이루어졌다.

메모 3

프로젝트 A물리적 수집이 이루어졌다. 수집된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파트와 관련된 두 기록이 수집되었다.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에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소장하고 마을에 숨어에서 수집한 아파트와 관련된 박물류가, 정릉 스카이아파트는 성북신나와 성북문화재단에서 진행한 2016년 '굿바이 스카이아파트'를 위해 수집한 박물류와 전시 물품이 이관되었다.

촛불혁명과 관련해 기억발전소에서 2016-2017년 촛불혁명 현장에서 수집한 피켓 등의 박물류와 디지털 사진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기록기념회의 촛불시민운동 사료 전자파일이 수집되었다.

역(공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청의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역기획팀에서는 2017년 진행한 '마을 아카이브 展'을 통해 전시했던 마을공동체의 발간물과 전시물품 등과 전자기록물이 이관되었다. 서울혁신센터가 2015-2016년 수집하고 정리한 구 질병관리본부 시절의 도면, 서류, 박물류와 디지털 사진이 이관되었다.

역사와 관련되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수집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위안부기록물, '서울사진아카이브연구소가 소장한 조선총독부 시절의 자료 목록과 사진정보 체계가 이관되었다.

메모 4

앞선 사례 가운데 둔촌주공아파트와 서울혁신센터의 구 질병관리본부 시절의 수집 기록물의 목록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목록화 작업에서도 본래의 생산 맥락을 담아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표준이라 할 **통합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 메모 5 했다. 이에 대해서는 면담 대상이던 사진아카이브연구소의 이경민 소장도 의견을 내놓았다.

메모 5

메타의 표준화를 권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정한 메타를 맵핑하면 된다. 기록원은 표준적으로 관리하고, 내용의 메타가 있다고 하면, 공동체에서는 '알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용어를 기록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다. 걱정하는 건 그런 메타가 다른 게 아니라, 그것들까지가 정리할 수 있느냐. 최소한의 메타를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예시를 주는 정도가 좋겠다. **[이현정]**

"DB의 표준, 통합매뉴얼'이 불가능하고, 각 기관마다의 기준으로 정리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과 각주의 맥락을 안내하고, 거기에서 취사선택해서 보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주체나 구성원이 많고 다르다. 하나의 테마를 가진 사진아카이브연구소만 해도 사진의 메타적인 성향 때문에 그 안의 다층위적으로 해석된다. 단순히 사진이라는 매체 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지 못한다. 하물며 그러한데 수많은 목적과 범주가 갈리는 공동체 아카이브는 어떠할까? 우리에게 하나의 매뉴얼은 없다. 오로지 n개의 매뉴얼만 있을 뿐.

또한 민간영역의 경우 폴더 정리, 자료 파악, 목록화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도 공통점이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앞으로 이러한 수집활동이 지속될 때, 수집과 동시에 서울기록원의 아키비스트가 모든 단계의 작업을 직접 수행해야한다는 말이다. 특히 본래의 생산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히 기록물만 이관 받아서는 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기록물의 파악, 분류, 정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 기록인지를 파악하는 접근방식 자체가 공공기록물과 다르기 때문이다.** 메모 6

메모 6

민간 수집과 매뉴스크립트 방향으로 수집하는 건 다르다. 민간의 경우 (활동하는) 그들이 주체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본인들도 뭔지 모르지만, 주도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

미숙하기는 하지만, 자료를 맡겨버리는 마인드는 아니다. 민간 수집의 접근방식이 (매뉴스크립트 수집과) 얼마나 달라야하는지는 기록학에서 아직 방법론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실정이다. **[이현정]**

민간영역 수집활동의 경우 아키비스트가 얼마나 기록현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실제로 동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차별점이 된다. 물리적 기록만이 아니라 기록이 생산되는 현장, 그 과정에서 체득하고 경험한 것이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차라리 실체가 있는 수집은 쉽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이점은 바로 **연대와 협력을 지향하는 '관계의 수집'이라는 점이다.** 메모 7

메모 7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규모가 다르지만 민간과 어떠한 라포도 없이, 사후에 기록만 수집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 공동체에 신뢰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기록활동가로서 아키비스트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지 고민해야한다. 기록영역으로 확장한다는 마인드를, 기록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그 안에 있어도 그들 자체가 될 수 없다. 거기서 신뢰를 얻고 기록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할 때 무엇을 기록할지가 명확해진다. **[이현정]**

나중에 수집을 직접 진행한다면 무엇을 가져오고 싶은가?

공동체 아카이브도 흥미롭지만 개인들의 일기나 직접 생산한 기록물을 보고 싶다. 작은 단위의 시민 기록에 대한 관심이다. '일기'가 많이 모이면 어떤 형태가 될까? 작은 이야기들은 어떻게 수렴될까? 모자이크가 될까? 서울기록원의 장기적 수집대상으로 이런 파트가 있으면 좋겠다.

시민기록 콜렉션을 구성할 때 일기나 사진 콜렉션처럼 특정 매체에 집중한 콜렉션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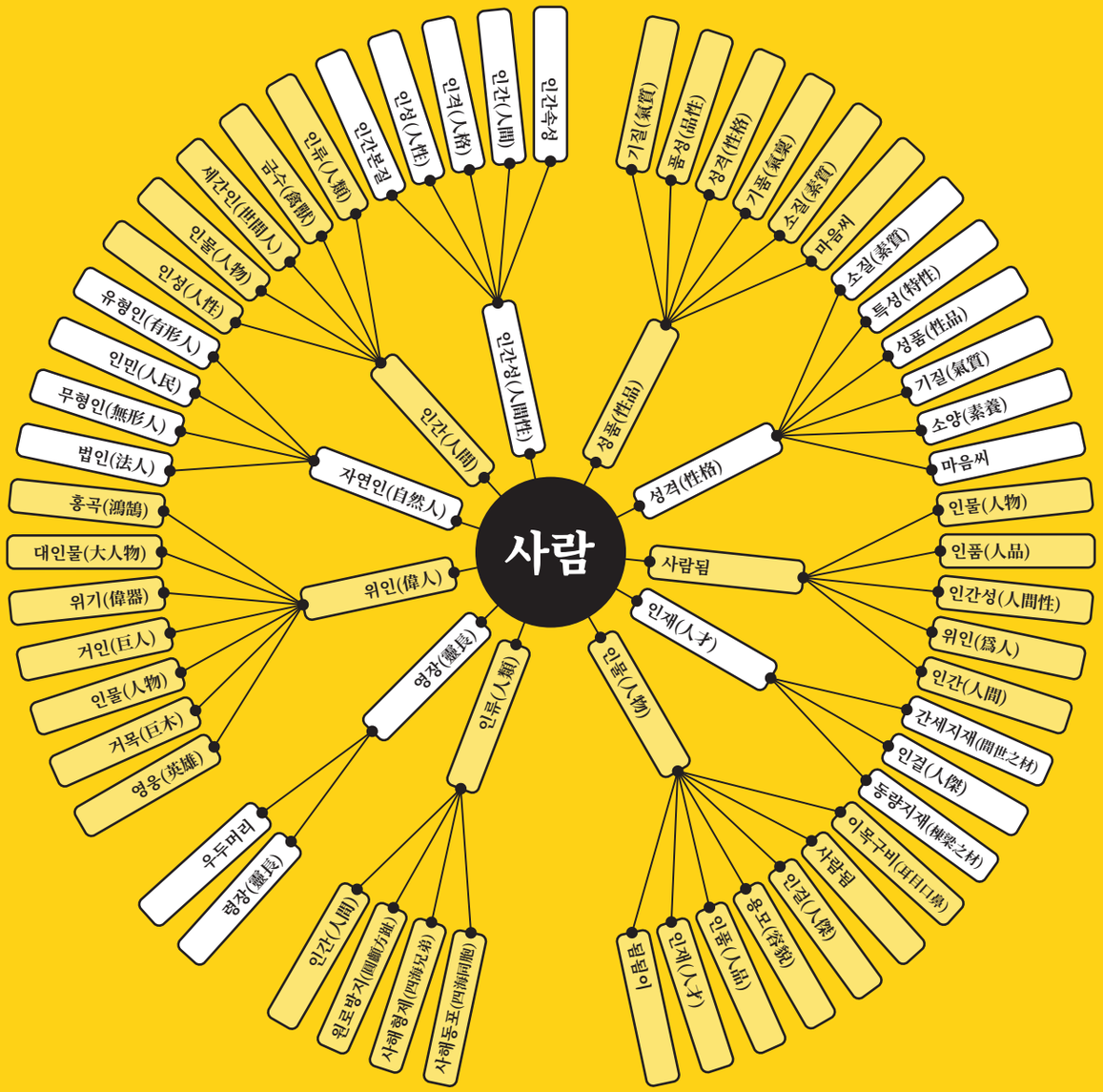
내가 생각하는 민간기록 수집 대상은?

되게 많다. 사실 다 하고 싶다. 과연 '기록이 뭘까?'라는 질문을 항상 한다. 공공기록은 형식과 분류가 있는데, 공공기록을 넘어서면 필기한 메모부터 입은 옷에 이르기까지 모두 기록이 될 수 있으니까. 뭘 모아야 할까? 정보나 관계도 모은다면 다 모을 수 있는 것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수집팀의 요건은?

수집사업은 본질적으로 규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정의되지 않는 것이 매력이다. 틀에 가두지 말고 규정하지 말고 '찾아가는 것'.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수집팀의 요건이다. '갇히지 않는 자유로움'. [조영삼]

5.사람



"민간기록이 사람이라면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우리는 기록물을 의인화해서 표현해보기로 하고 질문을 던졌다.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관계와 경험의 수집'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그들의 활동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공공기록과 달리 민간기록, 민간기록 활동은 어떤 느낌을 주는지 캐릭터를 상상해보고 싶었다.

다중인격자

민간기록의 유형이 너무 다양하니까 정의하기가 어렵다. 한 사람의 모습으로 구체화하기 어렵다.

덕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빠져있는 사람. 민간 기록은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하는 것 같다. 자기 관심을 기록하는 부분에서 좀 덕후 같다. 돈이 되는 일도 아닌데 흠뻑 빠져있는 것도 그렇다.

의욕은 넘치지만 감당 안 되는 사람

하고 싶은 건 참 많은데 감당은 안 되고. 의욕이 넘쳐서 이것저것 모으는데 정리와 분류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모아놓고 나중에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 솔직히 내 얘기 같다.

나비 채집자

깊은 정글로 들어가 그 누구도 발견하지 않은 아름다운 나비를 찾기 위해 헤매는 채집가. 단순한 열정만으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궁극의 나비를 찾기 위해 비교할 수많은 다른 나비에 대한 채집과 연구를 병행하는 진지한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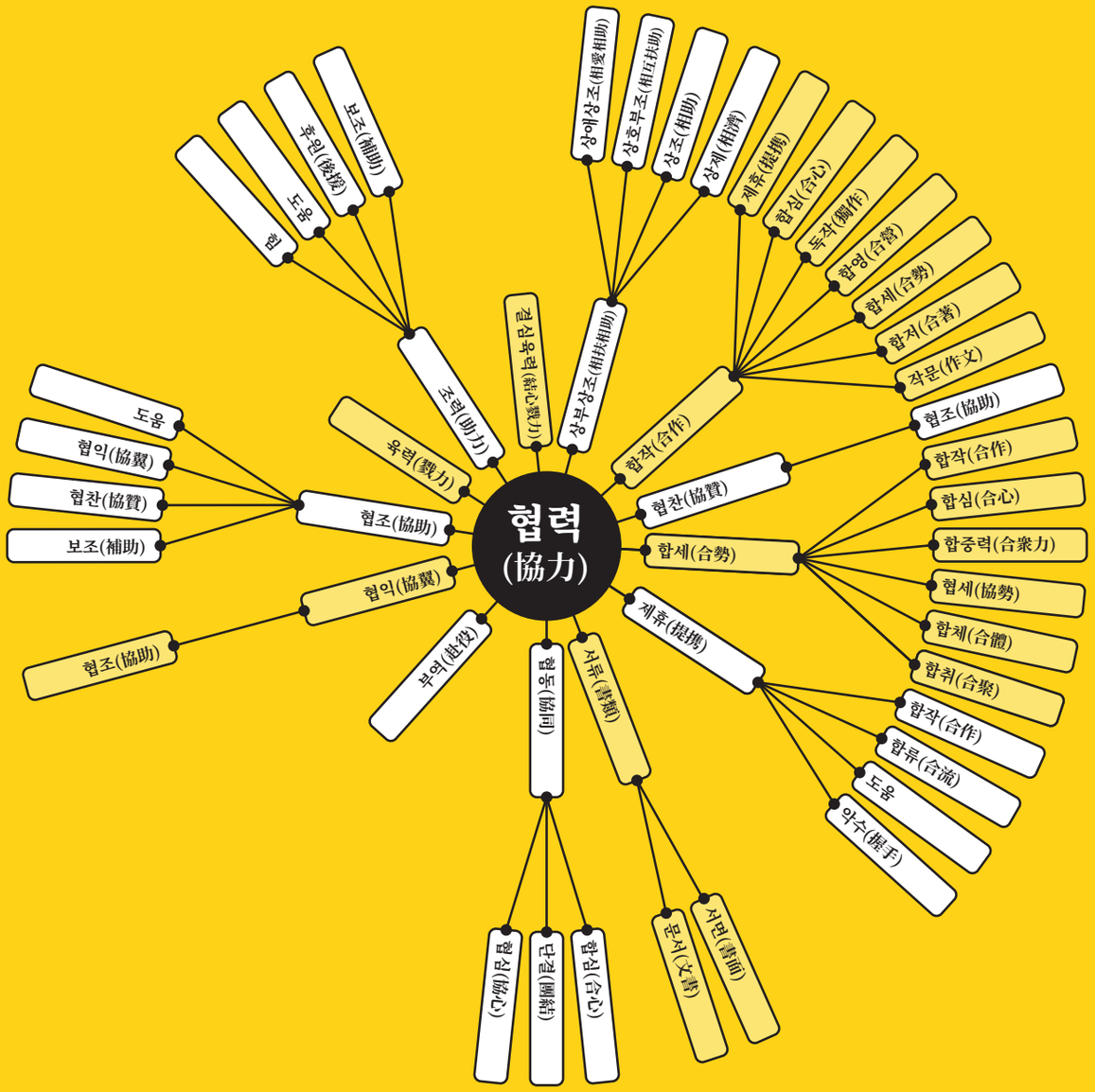
'나'를 질문하는 사람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 나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의지를 가졌을 것 같다.

인내심이 좋은 사람

아키비스트 대개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잘 참는 성향의 사람이 아닐까? 무언가를 기억하고 기록한다는 건 단기간에 되는 일도 아니고, 돈도 안 되는 일이고, 하다보면 외롭고. 회의가 들 때도 많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6.협력(協力)



총체적인 서울기록화를 위해 공공, 협치, 민간영역의 기록활동을 아우르는 허브를 지향한다는 서울기록원의 비전과 목적은 사업의 전제였다. '허브'로서의 서울기록원을 생각했을 때 다양한 주체들과의 교류와 협력은 필연적이다. 사업 기획부터 '어떻게 협력해나갈 것인가? 협력을 통해 만들어질 모습은 무엇일지'를 고민해왔다. 사업 초기 제안서에는 '협력'이라는 단어가 54번 등장했다.

협력의 사전적인 의미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이다. **우리는 먼저 협력의 상** 메모 1 을 그려야 했다. 서울기록원과 다양한 기록활동 주체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조직을 '협력네트워크'로, 네트워크 안에서 보다 구체적인 '서로'와 '도움'은 무엇이고, 함께 하여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은 무엇일지, 이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무엇인지를 쌓아가야 했다. 이번 사업은 무엇보다 앞으로의 협력을 위한 소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했다.

메모 1

Association of Moving Image Archivists (AMIA)가 기록인 행사에서 공동체를 위한 동영상 관리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부스를 마련하면, 공동체 아카이빙하려는 공동체들과 관심 있는 기록인이 참여하고, 관리하는 사람과 교육된 자원봉사자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후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나갔다. <http://communityarchiving.org/avfair/> **[이현정]**

협력의 첫 걸음으로 먼저 여러 영역의 기관, 단체의 활동가들과 함께 "단체들의 자생적인 기록활동을 하며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도움과 요구는 무엇인지, 민간 아카이브 영역에서 서울기록원과 지역주민(단체)이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며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서울기록원이라는 허브를 통해 지역주민의 활동과 마을아카이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개별 활동가 혹은 그룹과 함께 1-2차례 미팅을 통해 '서로를 돕기 위해 서로를 이해해나갔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들의 어려움이나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듣고 이를 원조나 지원으로 먼저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했다. 기록활동의 자발성, 자립성, 독립성을 유지하고 기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서울기록원과 협력대상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협력대상은 비단 서울기록원의 외부에만 있지 않았다. 서울기록원의 사업과 담당자의 역할도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사업 과정에서 기록활동의 수집부터 기록물의 인수, 등록, 분류, 정리, 기술, 맥락연계, 온오프라인 콘텐츠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를 실험하면서도 다른 부서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진행과정을 공유하며 함께 만들어가야 했다. 기록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Process 02

워크숍 질문지

[민간 기록] 나는 이번 수집사업을 하며 민간 기록을 ○○이라고 생각한다.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민간 기록]** 기록원이 왜 민간 기록을 수집해야할까?	**[민간 기록]** 이번에 수집하고 싶었던 민간 기록이 있었다면 무엇인지와 그 이유는?	**[민간 기록]** 수집사업을 통해 만난 민간 아카이브 단체/활동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들은? 왜?	**[번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했다! 사업과 별개로 꼭 말하고 싶은 것은?	**[번외]** 사업 기간 중 가장 맛있던 음식? 언제, 어디서, 누구?	**[번외]** 이번 사업을 진행하며 나에게 안식이 되어준 장소는?	**[번외]** 이번 사업을 진행하며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인지와 이유는?	**[번외]** 이번 사업을 진행하며 꾼 꿈 중에 가장 신기했던 꿈 하나 이야기하기	**[번외]** 당신이 닮고 싶은 아카이브가 있나? 있다면 무엇을 닮고 싶은가?	**[번외]** 당신에게 기록이란?	**[번외]** 오늘 끝나면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민간 기록] 내가 생각하는 민간 기록 수집 대상은?	**[민간 기록]** 내가 생각하는 민간 기록 네트워크 대상은? 어떤 사람(단체)이 네트워크 대상일까?	**[민간 기록]** 민간 아카이브 단체/활동가가 했던 기억에 남는 문장은?	**[민간 기록]** 민간 아카이브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까?	**[번외]** 이번 사업을 진행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다면?	**[번외]** 이번 사업을 진행하며 아찔했던 순간이 있다면?	**[번외]** 이번 사업을 진행하며 선물 같은 순간이 있다면?	**[번외]** 이번 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방황했던 시기는 언제이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번외]** 이번 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방황했던 시기는 언제이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번외]** 개인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있나? 있다면 무엇인가?	**[번외]** 당신의 생각하는 서울기록원의 정의	**[번외]**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기록은?
[민간 기록] 민간 아카이브와 함께 하기 위해 서울기록원이 가져야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민간 기록]**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이해가 안 되는) 용어는 무엇이었나?	**[민간 기록]** 민간 기록이 말하는 서울은 어떤 곳일까?	**[민간 기록]** 민간 기록이 서울기록원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번외]** 이번 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수집 사업]** 수집 사업이 현재 시점에 필요한 이유는?	**[수집 사업]** 이번 사업을 하며 영감을 받은 책이나 문장은 무엇인가?	**[수집 사업]** 사업 진행 중 가장 어려웠던 갈등은?	**[번외]** 당신이 개인적으로 수집하고 싶은 기록은 무엇인가?	**[번외]** 당신이 기록원장이라면 가장 하고 싶은 사업은? 단년 사업, 3/5개년 사업, 10년 사업 세 가지로 구분해 말해도 좋습니다.	**[번외]** 당신은 당신의 기록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예라면 어떤 기록인지, 아니라면 왜인지.	**[번외]** 당신에게 '서울'이라는 도시는?
[민간 기록] 민간 기록이 사람이라면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협치 기록]** 나는 이번 수집사업을 하며 협치 기록을 ○○이라고 생각한다. (○○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시정 기록]** 수집사업을 통해 시정 기록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수집 사업]** 지금 하는 일, 작업 장점과 단점을 말해보자.	**[수집 사업]**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동료는?	**[수집 사업]** 기록원 구성원으로서 수집팀 공동의 목표는?	**[수집 사업]** 내가 생각하는 수집 사업 진행의 적합한 태도는?	**[수집 사업]**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사업의 구성원으로 나라는 자아의 욕망	**[번외]** 이번 사업이 훗날 나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번외]** 개인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있나? 있다면 무엇인가?	**[번외]** 당신이 생각하는 서울기록원의 정의	**[번외]**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기록은?
[수집 사업]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일을 떠올려본다면?	**[수집 사업]** 수집 사업과 전시 사업을 연결할 때 이런 고민을 해봤다?	**[수집 사업]** 과거로 돌아간다면 가장 바꾸고 싶은 결정은? 왜?	**[수집 사업]** 나중에 수집한다면 이전 꼭 가져오고 싶다? 무엇을? 왜?	**[수집 사업]** 이번 사업을 하며 다닌 곳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이유는?	**[수집 사업]**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너무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지. 왜?	**[수집 사업]** 앞으로 이 사업이 변화해야할 것은?	**[수집 사업]** 수집팀의 활동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번외]** 당신은 기록학전공자로 어떤 '아키비스트' 입니까? (혹은 어떤 연구원)	**[번외]** 당신이 생각하는 아키비스트의 정의	**[번외]** 서울기록원의 10년 뒤를 상상하시오, 사람들이 뭘 가장 흥미 있어 하고 좋아합니까?	**[번외]** 최근 가장 재밌었던 기록과 관련된 전시는? 이유와 차별점은 무엇인가?
[수집 사업] 이번에 수집한 기록 중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이고 느낌 말하기	**[수집 사업]**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며 미안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 왜?	**[수집 사업]**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며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 왜?	**[수집 사업]** 나는 이번 수집사업을 ○○이라고 생각한다.	**[수집 사업]** 이번 사업의 장점은?	**[수집 사업]**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한다면 개선해야할 것은?	**[수집 사업]** 내가 생각하는 수집팀의 요건은?	**[수집 사업]** 수집팀의 활동하며 가장 고민했던 점은?	**[번외]** 왜 사람은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지 자신만의 언어로 정의내리자면?	**[번외]** 성경은 기록일까, 소설일까, 종교일까?	**[번외]** 당신은 내일 기억상실증에 걸리지만, 딱 하나를 기억 할 수 있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가?	**[번외]** 당신만이 기억할 수 있는 잊혀진 사람들이 있는가?
[수집 사업] 수집 사업을 진행하며 만난 사람들과 나는 대화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수집 사업]** 나는 이번 수집사업을 기록원에서 하는 이유는 ○○이라고 생각한다.	**[수집 사업]** 이번 수집사업 3대 사건	**[수집 사업]** 이번 사업을 하며 내가 가장 많이 쓴 물건은 무엇이고 왜 그랬는지 말하기	**[수집 사업]** 이번 사업의 단점은?	**[수집 사업]** 이번 사업에서 좋았던 점은?	**[수집 사업]** 수집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집 사업]** 내가 생각하는 수집 사업의 목적은?	**[번외]** 내일 서울기록원 개관이 백지화된다면,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는가?	**[번외]** 이번 사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단어는?		

Process 03 플래시백 14일

아키비스트 박 주임의 14일

공공기록을 관리하는 아키비스트는 고도로 훈련을 받고 업무에 배치된다.
이번 사업을 담당하는 박 주임도 그렇다. 주로 공문서 위주의 업무처리에 익숙했고
민간기록을 생산하는 단체나 활동가들을 직접 만날 일이 없었다. 협치/민간기록을
수집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박 주임.
그의 2주일을 되돌아보았다.

1주차

월

❶ **자리에 앉아 업무흐름도와 매뉴얼을 읽는다.**[1]

❷ 지금까지 구성된 **협력네트워크**[2]를 파악하고, 진행상황을 정리한다.

❸ 협력네트워크 예상목록을 통해 방향에 맞는 단체 리스트를 선정해 팀원들과 상의하고 내부에 공유한다.

❹ 단체 리스트에서 당시 주요 이슈나 시급성 등에 따라 협력네트워크 접촉 우선순위를 정하고, 확정된 협력대상의 기초정보를 찾는다.

❺ 관련 정보를 **리드파일**[3](도입부)에 적는다.

화

❶ **단체(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한다.**
사업을 소개하고 일정을 정한다.
- 곧바로 응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관련 내용과 자료를 메일로 보낸다.
-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경우, 메모를 부탁한다. 메일 주소를 받는다.

❷ 메일을 작성한다. **(서울기록원 소개) 사업소개서 사전설문지를 첨부**[4]한다.

❸ 회신을 기다린다.

1

TIP

업무흐름도와 매뉴얼이 있어도 어디까지나 참고용일 뿐입니다. 실제로 업무가 진행되면 업무흐름도와 매뉴얼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민간기록을 다루는 단체나 활동가들과의 소통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경우와 달리 좀 더 섬세하게, 때로는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하는 건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친절한 안내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록관리의 입장에서 당연하게 쓰는 용어들조차 민간영역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의도와 목적을 오해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협력'의 의미 생각하기

공공기록관의 담당자가 자칫 '협력'이 아니라 '원조'나 '지원'의 입장에서 다가가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과 방식으로 움직이는 영역이기에 협력을 하기 위해서 논의해야할 사안과 조건, 배경 등이 모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협력'이나 '지원'을 통해 자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하거나 기존의 질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민간영역이 만나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을 때는 매우 신중해야합니다.

3

변용된 리드 파일

민간단체의 기록활동을 수집하는 이번 사업은 공공영역 아키비스트가 민간영역의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편의를 고려하여 기존의 기록관리형(?) 리드 파일의 틀은 유지하지만 그 안에 채워지는 내용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기존의 리드파일은 아카이브와 컬렉션 단위로 작성되었다면 이번 사업에서 리드파일은 기록물을 소장(보관)하는 협력대상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1)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가운데 직접 만들지 않은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 누가 어떻게 기록물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리드파일을 구성했습니다. 리드파일 항목 중에 '관계정보'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서울기록원의 아키비스트는) 면담을 통해 이야기된 요구사항과 지원사항 등 협의된 내용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리드파일 항목 중에 '협력방안'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❶ 회신이 오면 일정/미팅 장소를 정한다.
- 미팅에 참여할 담당자를 확인한다.
- 단체(개인)의 공간(작업실) 위치를 확인한다.

❷ 미팅 하루 전 미팅 일정을 한 번 더 확인한다.

목

❶ 방문 이유를 간단히 소개한다.
- 담당자와 명함을 교환한다.
- 녹음/필기/사진촬영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 개인정보활용동의를 받는다.

❷ 사업을 소개하고, 협력 대상의 기록활동과 협력/면담 (지원방안, 협약 내용을 설명한다.)

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한다.
가능한 지원사항을 전달한다.
추가 면담이 있을 수 있음을 알린다.

금

❶ **케이스파일**[5]을 작성한다.

❷ 협력대상의 요구사항과 예상지원방안을 정리한다.

❸ 상부에 보고해 **협약**[6]체결이 가능한 대상인지 정한다.

❹ 추가 면담 여부를 결정한다.

4

TIP

공문보다는 친근한 메일을 추천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공문으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민간기관이나 활동가 개인에게는 딱딱한 공문보다는 간결한 구어체의 설명이 더 알아듣기 쉽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 이상으로 거창하거나, '수집', '이관' 등 일상적이지 않은 용어가 남발되면 자발적으로 수집하거나 기록한 민간기록물을 공공영역에서 '쉽게 빼앗아가려는 건가?'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더라도 공기관이 지니고 있는 엄숙하고 딱딱한 권위주의가 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5

면담 내용을 정리할 때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 차례 면담이 진행되면 면담에 참여하는 담당자가 다수이거나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협약의 범위

협력대상과 서울기록원 각자의 실현 가능 범위 안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적힌 협약서를 주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협력대상이 원하는 협력이나 지원의 내용과 서울기록원이 실제로 수행가능한 능력 범위가 겹쳐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협약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 협력과 지원은 이후 예산이나 법규 등의 문제가 해결된 후 진행하기로 하고 포괄적 협약을 맺어 서울기록생태계의 네트워크에 함께 하도록 합니다.

2주차

월

❶ 담당자에 연락해 추가 면담 일정과 장소를 정한다.

화

❶ 추가 면담을 진행한다.

❷ **케이스파일**[7] 을 작성한다.

수

❶ 협약서 초안을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낸다.

목

❶ 단체(개인)에 의견에 따라 협약 내용을 수정/보완해 최종안을 작성한다.

금

❶ 협약한다.

❷ 협약 내용에 따른 실무를 진행한다.
- 실물 수집이 이루어진 경우 분류/정리/인수/등록작업으로 연계한다.
- 그 외 협약 내용에 따라 다른 부서와 연계 협업한다. (ex. 디지털아카이브 팀)

7
케이스 파일은 미팅 때마다 작성합니다.

Process Records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행정국장 **황인식**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장 **김은실**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장 **원종관**

주무관 **박지현, 임태원**

사업팀

-

수행기관 **기억발전소**

기획 **기억발전소**

집필자 **전미정, 이원영**

편집자 **박소진, 김수진**

연구자 **소준철, 장대환, 박수연**

사진 **스튜디오 텍스처온텍스처 (신해수, 정유진)**

디자인 **스튜디오 패스미더솔트 (유영미, 신은혜, 최승우)**

자문위원 **이영남, 이현정, 안정희**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 아카이빙북

2018.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 아카이빙북

Process Records

2018.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서울시 주요 시정정보 기록화사업 아카이빙북